

젊은이 페이지

이 난은 젊은이 페이지로 대학부와 청년1부가 한번호 맡아서 편집합니다.
대학부, 청년1부의 생생한 소식과 함께 젊은이들의 순수하고 생동감 넘치는 글과 내용들을 집할 수 있습니다.

새벽기도회 후기

새벽을 깨우려다!

제가 총천교회 청년1부에 처음 발을 들여 놓은 것은 97년 1월의 일이었습니다. 교회에 다니기 시작한 것도 그즈음에 일어났으니까, 아직도 전 신앙 생활에 부족함이 많은 신참내기 성도인 셈이죠. 처음엔 교인들에 대한 선입견으로 인해 마음을 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과 친해지기 힘들었지만, 여러 조장 누나와 조원들의 따뜻한 배려 덕분에 차츰 이곳 생활이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기도하는 것이 창피하고, 성경책의 내용을 이해하기 힘들며, 모르는 찬송가도 많아 찬송 부르기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러던 제가 새벽기도회에 같이 다니자는 조장의 권유를 망설이면서 받아들인 것은 아무리 생각해 봐도 신기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는 제가 마지막 논문 정리 때문에 무척 바쁜 기간이었음에도 말입니다. 저의 집에서 교회에 가려면 늦어도 4시에 일어나서 4시 반에는 나와야 합니다. 지하철도 다니지 않는 아주 이른 시간입니다. 그래서 매번 택시를 이용하게 되는데, 택시 기사들은 저를 믿음이 매우 강한 사람으로 오해(?)하기 때문에 부끄럽고 난처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에 걸려서 혼났습니다.

썰렁한 새벽 공기를 마시며 예배당 안으로 들어서니, 언젠가 노았는지 많은 분들이 목사님과 함께 찬송가를 부르고 계셨습니다. 주일 예배 시간보다 편안하게 찬송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언젠가 그랬듯이 목사님께 듣는 성경 말씀도 좋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만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처음 해 보는 건 기도였습니다. 짧은 신앙심에서 나오는 기도인지라 기도시간도 짧았지만 어떻게든 길게 늘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했던 말들이 되풀이되더군요.

이렇게 처음 나온 새벽기도회에서 제가 느꼈던 것은 썰렁하지만 맑고 깨끗한 새벽공기, 좀더 편안한 찬송가와 말씀, 길지만 그리 지루하지 않은 앉았던 기도, 그리고 교회에서 주는 아침밥의 따뜻한 등이었습니다. 약간은 기대에 못미치는 듯한 느낌, 싫지는 않지만 그렇

다고 너무 좋은 것도 아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것이 새벽기도가 제게 준 전부였다면, 벌써 저는 새벽기도를 중도에 그만두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번째 새벽기도를 하러 가던 날, 저는 한 가지 커다란 배움을 얻었습니다. 갑자기 기도를 유창하게 할 수 있게 된 건 아니고, 그렇다고 제가 그곳에서 예수님을 만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저는 지난 주와 다름없이 새벽에 교회로 나와, 지난 주와 다름없이 편안하게 찬송과 말씀을 배우고, 어색한 기도를 드리고, 따뜻한 아침밥을 먹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그것은 나에게 매우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내가 교회에 와 있구나." 전에는 이 새벽에 이곳에 있는 자신을 상상해 본 적도 없는데,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이곳에서 되지도 않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저는 새벽에 일어나기 위해 잠과 씨름해야 하고, 긴 기도 시간을 채우기 위해 했던 기도를 여러 번 반복해야 하며, 가끔은 기도 시간에 잠이 들기도 하지만, 새벽기도는 언제나 저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며, 자연스럽게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제는 새벽기도를 통해 알게 된 청년부 형제자매들도 많아졌습니다. 참으로 기분 좋은 일입니다.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시간은 새벽 4시 반, 새벽기도회에 가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만나게 될 택시 기사 아저씨도 날 부끄럽게 할지, 어떤 찬송가를 배우게 될지, 아침은 여전히 미역국일지, 그리고 오늘은 예수님을 만나게 될지 궁금합니다.

청년1부 '수요 새벽기도회'는 새벽 4시 40분 새벽기도회 후 6시 30분부터 교육관 1층 예비부(109호)실에서 진행됩니다. 기도하면서 청년1부를 위한 비전과 마음을 함께 합시다.

선교팀 사역 소식

사역팀별 수련회

역라마단 기도운동

취재 / 청년1부 김 유 영

청년1부 선교팀(팀장 황수미)은 지난 1월 한달간 역라마단 기도운동을 벌였다. '역라마단 기도운동'이란 라마단 절기(모슬렘의 30일 금식기도) 동안 크리스천들이 일(業)으로 기도하며 모슬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품도록 하는 운동이다. 이 운동은 중동의 한 회의에서 크리스천 지도자들이 이슬람교를 위해 기도하던 중 계획되었고, 이후 이슬람권에는 모슬렘들을 회심시키는 초자연적 사건들이 실제로 일어나면서 복음의 길이 넓어지고 있다고 한다. 선교팀은 해외선교를 다녀온 한 지체를 통해 이 운동을 알게 되어 1990년부터 동참하게 되었다.

모슬렘들은 신앙 실천의 다섯 기둥을 가진다. 즉 신앙고백(알라는 유일신이다), 하루 다섯 번 기도, 구제, 금식, 성지순례이다. 그 중 금식은 라마단 기간 중의 의무적이다. 이슬람력의 이슬람 달인 라마단은 금년에는 1월과 일치했다. 이 기간에 모슬렘들은 해가 떠서 질 때까지 음식, 음료 등을 금한다. 특히 마지막 열흘은 밤새 기도와 코란 낭독을 하며 큰 축복을 기다린다.

선교팀에서는 역라마단 기도운동 기간 중 목사님, 선생님, 면회회 임원, 조장, 기도를 작성한 일반회원들에게 기도엽서를 보내고, 매주 집회때 주간 기도 계획표를 주어 동기부여 팀별로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또 각 기도모임에서 모슬렘을 위해 함께 기도했다. 황수미 팀장은, "우리가 이 기도운동을 하는 목적은 세 가지예요. 첫째는 모슬렘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하신 마음을 우리가 함께 느끼자는 것이고, 둘째, 이 운동에 동참하면서 개인적인 기도 훈련을 하자는 것, 셋째, GBS 조장과 조원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서로가 동역자임을 느끼자는 것이죠. 역라마단 기도운동에 대한 인식이 아직은 부족하지만, 내년에는 더 확산될 거예요."라고 말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당연한 몫이다.

새벽 이슬람은 주의 청년들이 즐겨이 헌신하니

취재 / 청년1부 이수 정

지난 1월 16일(금), 17일(토) 1박 2일로 총천교회에서 청년1부 수련회가 열렸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주제 아래 '부흥, 예수 청년'을 구호로 삼았다. 대부분 직장인들로 이루어진 청년1부의 특성으로 인하여 금요일 오후 늦게 수련회가 시작되었다. 토요일 하루는 일찍 일어나는 등 열성을 내어 참석하였다.

이번 수련회는 특별히 청년1부 안에 있는 6명의 사역팀별로 진행되었다. 매월 '정예기'를 발간하며 문서 선교의 역할을 하는 문서팀, 약한 이웃에 사랑의 손길을 보내는 구제팀, 음악, 영화 등 다양한 문화 속에서 올바른 문화관을 정립해 가는 문화팀, 낙도, 오지, 병든 등 여를 단기 사역을 계획하고 후원하는 전도팀, 찬양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며 집회를 인도하는 찬양팀, 바른 선교관을 확립하며 해외선교를 후원하는 선교팀 등 6개의 사역팀이 98년 1년 동안 되어질 일들을 밤새 계획하며 준비하는 기회를 가졌다. 모든 회원의 팀원화를 목표로 누구도 빠짐없이 사역팀에 소속이 되었다. 김범수 목사(청년1부 지도)의 설교와 여러 청년1부 교사들의 강의를 다지고 사역팀별 소개와 기도제목을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98년 한 해, 새벽 이슬람은 주의 청년들이 즐겨이 헌신하며 사역하는 모습이 기대된다.

◎ 나의 주 나의 하나님 ◎

내 길 인도하신 이 오직 예수 / 2

교도소에 갇히고 죄에 갇힌 영혼들 향해 '가라!' 하시는 하나님

박 양 덕
(천도사, 교정전도회)

나는 본래 배운 것은 없으나, 공부욕심은 많았다. 그래서 충현성경학원에 입학해서 3년 간 열심히 공부했고, 다음에는 성경학원 졸업장을 인정해 준 칼빈신학교의 배려로 그 학교에 입학할 수가 있었다. 나는 너무나 행복했고 신나게 공부했다. 그 행복한 학교생활 중 1978년 여름이었다. 나는 농어촌 전도대원으로 섬기기 위해 다른 대원들과 나란히 자만에 앉아 있었다. 그런데, 당시 우리 교회 청년이었던 조관식 형제(지금은 목사)가 우리를 배웅 나와서 하는 말이 "서울소년원 성경학교 사역에도 좀 도와주시시오" 하는 것이었다. 바로 그 말 한마디가 계기가 되어, 무엇을 하겠다는 계획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던 나는 소년원과 교도소, 재소자 분류심사원 등을 오가면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의 무리에 섞이게 되었다.

다. 그러나 나는 이러한 종류의 일에 너무나 무지했고 어떤 면에서는 막막하기조차 했다. 그런데 인젠가 북한선교회 집회시 김창민 원로목사님께서 자신의 은사이신 이기신 목사님 이야기를 하시면서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사람들이 상대로 말을 늘어놓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눈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시는데 말씀을 듣고서는 큰 힘을 얻게 되었다.

이후로 나는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무슨 일이 생기든지 겸손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 그 확실한 힘으로 나는 서울소년원에 이어서 충주소년원(1981년도)과 인천소년교도소(현, 천안소년교도소: 1981 현재) 등으로 점차 사역을 확대시키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랐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들을 방문할 때면, 내가 직접 음식을 만들어서 가지고 간다. 아마도 동광원에서 배운 습관 때문인 것 같다. 동광원의 성도들은 나병환자들을 방문할 때마다 먼저 삼일 간 금식기도로 준비하고서, 손수 음식을 준비해 가지고 가서 그

▼ 재소자들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감하게 느낄 수 있다.



들을 대접했는데, 그 모습은 말씀 그대로 "주님께 하듯" 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그 아름다운 마음을 본받고자 수용생활하는 자들을 찾을 때마다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드린다.

한번은 인간적인 생각에, 도무지 사망할 수 없는 그들의 거친 모습을 때문에 크게 실망하고 위축된 적이 있었다. 입만 열면 욕이요, 돌아서면 도둑질인 이들에게서 거의 소망의 흔적조차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오랜 시간동안 이 감동 속에서 기도해 제발됐다. 그때, 나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10장 18절 말씀이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행하는 자를 이방에는 내어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겠느니라". 이상하게도 그 후로는 그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는 사병감에 조금도 의심이 생기지 않았다.

충천소년원 사역은 1982년에 시작하여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현재 정기적으로 돌아보는 재소자 수용시설은 총 일곱 곳이다). 이 일이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나는 매주 토요일이면 출원도 떠난다. 나에게 주어진 오후 두 시간 동안 그들과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다. 약 6개월 단위로 수용자가 바뀌는 그곳의 특성상 나는 짧은 기간 안에 그들에게 최대한의 사랑을 나누어야 한

▲ 지난 여름 충천소년원에서 있었던 성경학교 모습.

다.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가장 은혜가 넘치는 곳 중 하나는 전남 순천교도소와 청주여자교도소이다. 아마도 이곳의 재소자들은 무기수들이기 때문에 간절함이 더한 것 같다.

나는 교도소를 찾아 지금도 수원, 순천, 청주, 대구, 춘천 등지를 오간다. 몸은 많이 지치나 하나님께서는 여지없이 내 두 발에 힘을 실어 움직이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신다. 또한 앞으로도 그렇게 인도하실 것을 확신한다. 그리고 기도한다. "주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심정으로 저 담당 안에 있는 이들을 끌어안고 눈물로 기도할 수 있는 선생님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이 일을 꾸준히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아버지께서 쓰시는 사람을 보내어 함께 걷게 하옵소서". (끝)



◆ 이단 시리즈 2 ◆

에비온주의 (에비온파, Ebionism)

정현진

(목사, 16교구·법조인전도회·도시정착회 지도)

— 차례 —

- | | | |
|-------------|--------------|---------------|
| 1. 이단의 정의 | 3. 근·현대의 이단 | (3) 천부교 |
| 2. 초대교회의 이단 | (1) 여호와의 증인 | (4) 구원파 |
| (1) 에비온주의 | (2) 물문교 | (5) 영생교 |
| (2) 가나안 | (3) 안식교 | (6) 연회교 |
| (3) 영지주의 | (4) 크리스찬사이언스 | (7) 동방교 |
| (4) 아라부스주의 | (8) 새일교단 | (8) 새일교단 |
| (5) 사벨리안주의 | 4. 한국의 이단 | (9) 장막성전 |
| | (1) 통일교 | |
| | (2) 김기동 | 5. 이단을 예방하는 길 |

기독교 역사 초기에 발생한 교회내의 가장 큰 분열은 유대파 기독교인과 헬라파 기독교인 사이의 갈등이었습니다. 원래 에비온주의(Ebionism)는 구약성경의 '가난한 자'라는 뜻의 'evionim'에서 나왔으며, 본래는 에루

살렘 신자들에게 대한 경칭으로 사용된 단어였습니다. 에비온주의자들은 모세 율법의 유효성을 신봉하면서 유대인들의 율법과 전통 위에 기독교를 이식시키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그들 중의 한 분파는 모세의 율법을

자신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반면, 또 다른 극단적인 분파에서는 이교도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한 자들까지도 모세의 율법에 대한 복종의 의무를 가진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세의 율법이 하나님의 뜻을 명문화한 것이며, 전 세계의 모든 성도를 일관하는 유일한 진리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에비온파는 정경교회에서 배교자로 분류되었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분파를 지어서 무리를 이루었습니다. 그들은 마태복음을 제외한 모든 복음서를 거부했으나 무시했으며 그리스도의 동정녀 탄생을 부인했습니다. 나아가, 그리스도는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서 과거의 위대한 예언자를 중한 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는데 특히 에비온주의자들의 저작물 가운데 그들이 가장 중요시하고 있는 '위 클리먼트(Pseudo-Clement)'에서는 그리스도를 구약 성경에 나타난 선지자들과 동일한 위치에 올려 놓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는 참 선지자에 대한 새로운 형태의 계시로 묘사되면서 특히 그리스도는 이전에도 야람과 모세 가운데서도 나타난 바 있었다고 했습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세례시에 성령을 받았고 그리하여 예수는 메시아로 택함받았다고 주장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성을 부인하는 단계에까지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이 에비온주의를 기독교 역사적으로 볼 때에 기독교 신학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곧 소멸되고 말았지만 이들의 사상은 마초렛에 대해서는 많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마초렛에서 주장하는 참 선지자의 개념이나 모세와 예수님을 동일신상에서 취급하는 사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간략하게 에비온주의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선생님은 갈라디아서 1장 7-9절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경고하는가 하면 골로새서 2장 8절에서는 "철학자 헛된 속임수를 전하는 이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에비온주의를 한 마디로 규정한다면 '유대교적 율법주의자들로서, 기독교의 유대주의화를 주장했던 이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지체들 소식

▶ 15교구 / 요즈음 많이 쓰는 말 가운데 '거품'이라는 말이 있다. 국민이 고통을 나누어야 한다고, 그래서 거품이 걷날까도 망연히 기다리야 하는데 그 '거품' 속에 '나'는 거꾸어 말아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우리들을 우울하게 한다.

상처에 소독약을 바르면 더 거칠어진다 거품이 부글부글 끼어오른다. 곧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그러나 상처는 소독을 해야만 치료하고 낫게 되고 다 나 은 곳에 소독약을 바르면 더 이상 거품은 나지 않는다.

그리스도인들의 삶 속에서도 기도 속에서도 거품을 거두어야 할 때이다.

15교구 모임(매주 오후 2:00-3:00 장소:배다나홀)에서 김진식 목사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도를 생략을 하라고 하시면서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에 정직한 자의 기도를 기뻐하십니다."

는 의식을 가지고 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기도하고 행동하는 교구가 되기를 말씀하시며 제자와 유비스런 말씀 한마디 '막달라 마리아' (막무가내로 달라 고만 말하는 '막 달라 말야'의 발음 표기)의 기도는 이제 그만 하라고 하시며 완반당 미처지는 웃음을 웃으면서도 각자 마음에 새기시는 교구모임이 되었고 오인숙 전도사님은 2월 2일-5일까지 청지기 훈련을 통해 성찬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이 교구 성직자들에게 일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교구 성직들의 참여를 독려하였다. (한수정 통신원)

▶ 중동2부 / 이번 23일부터 겨울 수련회에서 목적인 신앙성장 완독을 위해 드디어 실전에 돌입!

먼저 2일부터 전 교사들이 연속 금식 기도 실시를 선포하고 분반 공부에 들어가기 전에 중동2부 온 가족이 백성기 선생님의 인도로 누가복음 16장을 2절씩 교육하며 말씀을 읽는 중에 누리는 은혜에 축복하 것이 들었지요. 이어서 있는 교사회에서도 박용기 집사님의 인도로 신앙성장 완독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기도하고 교사들도 학생들과 함께 성경 읽기에만 전념할 것을 당부! 그리고 이어서 사심명의 교사가 감격스런 목소리로 예배종례를 읽으면서 다시 가슴비친 은혜를 재확인했습니다. '우리는 무력하지만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주님은 능히 이루시고 남는 다'는 확신을 하면서 ... (나성에 통신원)

▶ 영아부 / '하루에 한 번 아기를 축복하라' 민수기 6장 24-26절 말씀으로 지난 주일 1부와 2부 사이에 한영준 전도사는 영아부 '학부모 특강'을 해주셨다. 아빠가 여행중세라도 전하로 아가에게 축복기도해 주고 외출시에는 물론이고 아기가 잠들기 전에 매일매일 아가에게 '축복'의 기도 말씀을 하고 '마음에 와 닿는 신화와 함께 강의를 해주셨다.

영아부는 오는 2월 15일 새천구 초 청 잔치가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만2세까지 아기를 초청합니다. 장소는 선교관 1층 102호.

시간은 주일 아침 8시 50분과 10시 50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찬송과 기도는 영아때부터 들려 줍니다. (송혜정 통신원)

▶ 2월 1부 / 청년1부에서는 지난 2월 7일 단기 선교 언어 훈련 교실이 개강을 했다. 이 교실은 앞으로 다가를 여름 단기 대회를 대비하여 소명을 위한 영적, 기능적 준비 과정을 위한 성경 공부와 현지인들과의 의사 소통과 실제 생활권의 문화를 이해하기 위한 영어 회화를 강의하게 된다. 시간은 매주 토요일 3-6시까지이고 한 학기 동안 교육관 5층 청년1부 머리회실에서 운영될 것이다. 자기 수준에 맞는 교육을 받을 수 있다고 하니 청년부 회원들뿐만 아니라 선교에 관심이 있는 많은 이들이 참여하여 선교를 할 수 있게 되어 기뻐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 청년2부 / 청년2부에선 매주 월요일 저녁 7시에 서울역으로 노방전도 나가는데 탐매 토요일 오전 11-2시, 오후 3-4시에 중앙병원으로 전도를 나가는 병원전도팀에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회원들을 찾고 있다. 또한 일요일, 직장 등이 전월전 목사(청년2부)의 인도로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30분부터 성경공부를 하게 된다. 앞으로 이러한 여러 가지들로 인해 말씀과 전도와 교제가 모두 잘 이루어져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년2부가 되어지길 바란다.

▶ 새가족부 / 새가족부에서 오는 (2월 8일) 성경안상대회를 연다. 잠 3:1-8, 롬 1:15, 5:8, 고 3:16, 엡 2:8의 말씀들을 새가족부 모든 회원들이 외우게 되는데 외우는 하나하나의 성구들이 새가족들을 마음 속에 새겨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더욱더 깊어지길 기대한다. (박주영 기자)

2월15일 예배 전 찬양곡목 및 연주자

2부예배

오르간 김윤경

홍신대 교회음악과 졸업

독일 하일베르크

교회음악원 졸업

플란드 스펜가케미

졸업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음악원 수료

소회의 독주회 및 CD 출판

홍신대 출강

충원남성초장단 지휘, 임마누엘찬양대

오르가니스트

〈찬양곡목〉

· 온 천하 만물 우리러(찬 33장)

· 참 아름다워라(찬 76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 40장)

· 면류관 가지고(찬 25장)

3부예배

바이올린 김유정

한양대 음악대학

기악과 졸업

MBC 관현악단 수석

근무

SBS 관현악단 악장

근무

KBS 관현악단 악장

한일푸아오케스트라 악장

〈찬양곡목〉

· 내 너를 위하여(찬 185장)

· 눈을 들어 하늘 보라(찬 256장)

· 고들의 땅에 벗으리(찬 330장)

· 내 마음에 낙심하며(찬 406장)

· 아 하나님의 은혜로(찬 410장)

4부예배

아멘오케스트라

(지휘 / 이수철, 악장 / 오광호)

〈찬양곡목〉

· 주여 지난 밤 내 꿈에(찬 542장)

· 우리가 저를 만나게 되(찬 270장)

·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찬 364장)

·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 40장)

5부예배

피아노 안선영

경원대 음악대학

피아노과 졸업

대학부 졸업

〈찬양곡목〉

· 예수하신 하나님

· 예수 나를 위하여

· 감사해

· 목마른 사슴

◆ 구정 인사로 보낸 편지 ◆

"준비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황영일

(장로, 4교구장, 영아부장)

김성관 담임목사님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목사님과 가정 위에 한없이 부어 주시므로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를 힘입고 사역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립니다.

준비하셔서 쓰시는 하나님의 심비스려 온 역사에 찬양을 드립니다. 어느 누구도 배양을 수 없는 주님이 주시는 은총의 세계에서 찬양하며 말씀을 증거하며 기도하시는 목사님께 겸손한 심령으로 존경을 하며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역에 심히 부족하고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순종하며 다리고 있습니다.

세상일을 구하지 않고 오직 복음만을 외치시는 목사님이시기에 종종 담시게 되는 어려움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걸는 고난의 십자가의 길이 목사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순교자 스테판 집사의 담대함과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목사님에게 있음을 확신합니다. 바르라고 바음이 주님을 따라가면 그 길로 따라가시는 목사님께 주님의 항상 함께 계시길 믿습니다.

주님께서 오셨던 안타까움이 장로들과 성도들과 이 민족을 볼 때에 목사님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나는 고난의 사람이요 죄인의 괴수요 주님의 고백이 있어 하는데 깨쳐야 하는 고집스러운 불신앙의 모습들과 확신치는 않은 것을 고백하

고 만났으며 미련하고 답답한 저의 모습을 보면서 목사님의 중보의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지난해 함께 기도하자고 목사님께서 주신 편지에 대한 저의 생각을 적어 봅니다.

1. 중년의 잘려진 대학, 청년부 젊은이들의 문제가 늘 함께 해결되는 것을 봅니다. 해결 정도가 아니고 성령의 폭발적인 힘입니다. 지난주 간에도 새가족 등록자 53명중에 40명이나 젊은이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대로만 가더라도 연간 새가족 등록자 250명에도 청년들이 2000명쯤 차지하게 될 것입니다. 5부예배가 3부예배와 같이 부흥될 것입니다.

앞으로 고등부 1, 2학년과 3학년은 분리하고 고등부는 자체적으로, 고등2부(3학년)는 현재대로 진행되는 방안을 제안하여 봅니다.

2. 재정적 문제점을 분명히 하셔서 일반회계를 투명하게 운영되게 하고 사모하여 주심에 감사로 드립니다. 사람의 수만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총회교회 가 될 것입니다.

장학회에 250만원의 기금을 충원해 주셔서 자타목표액 300만원이 확보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바로의 장학금으로 귀위전 모세가 하나님의 연단과 성리로 총애

의 역사를 이루었고 느브갓네살의 장학금으로 다니엘이 키워져서 이삭과 요셉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고 예수님의 완전한 장학금으로 제자들이 키워졌던 것을 본받아 총회소속장학금으로 주님이 쓰시는 진정한 성직인공들이 키워지기를 소망합니다.

3. 분사, 차관, 성수주일에 관한 문제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은혜롭게 해결되어 가고 있음을 보면서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전도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에서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이지만 남전전도회에서 전도회원 확보, 지원회 지원, 집회, 구역 지원, 교회 문제를 하여 왔습니다. 메

번에는 전도회로 연합회를 구성했었으나 군민에는 교구별로 연합회를 구성하여 실제적인 전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4교구는 10이만 537명으로 되어 있고 연합회에 나머지 6만 7개 전도회로 구성되어 있고 구역에서 몇 이상의 전도대상자를 선별해서 교구간사를 통해 연합회에 전달이 되면 해당 전도회에 배정되어 구역과 전도회가 함께 전도대상자를 위해 기도하며 실제적인 전도를 하게 됩니다. 구역에서 전도대상자가 생길 때마다 연합회에 전달하고 전도가 되면 구역과 전도회가 계속 신앙생활을 도와 주는 방법입니다. 4교구에서는 시작하였습니다. 이 방안은 전도인원증과 지도목사님에게 말씀드립니다. 청년의 부흥에 맞추어 장년의 부흥으로 균형있는 교회 성장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의 동역자들과 같이 김성관 목사님의 동역자들도 주님의 은혜로 복되하실 것입니다.

구정절을 보내며 목사님을 찾아뵙고 싶은 마음이 간절하여 글로 대신합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 알림

- 제1차 학술심사위원회(학술심사위원회) 개원, 개원식을 올리는 아래 교육 일정에 따라 참석하시며, 15일(다움 주일) 찬양대에서 분과에서 학술, 세례식이 있습니다.
 - 학술, 개원, 개교 (교육관 307호) : 1교시(1500 - 1550) - 구원론(이수석 목사)
 - 2교시(1600 - 1650) - 문단(김희수 목사)
 - 유아세례(교육관 310호) : 1교시(1500 - 1550) - 유아세례(김희수 목사)
- 남녀신도부 임원회 및 직능신도부 임원회 영성훈련 / 오늘 1500, 갈릴릴로
- 수교교회 개장 / 15일(다움 주일) 1500 교육관 109호에서 개장예배를 드립시다.
 - 과정(4개월) : 초급, 중급, 고급반 - 문예 : 예화부(교육관 109호)
- 회계실습 교육 / 15일(다움 주일) 1500부 1600부까지 교육관 307호에서 있습니다
 - 다함은 신사도 지교회 - 대성 : 남전전도회 회계, 부회계, 교육위원회 회계, 부회계, 기타 교회회계 등주제에 관한 등주, 회계
- 크리스마스 - 만민원 신심 대원모집 / 관심있는 성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기간 : 오늘부터 3월 29일까지 - 문예 : 구자남 권사(514-6047)

● 모임

- 봉사위원회 월례회 / 오늘 1530, 사무국 회의실
- 정로 최요새교회도회 / 10일(다움)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고정전도회 월례회 / 15일(다움 주일) 1500, 갈릴릴로
- 12교구 협의회 / 12일(목) 1800, 관란반
- 15교구 1지역 / 12일(목) 1930, 관란반
- 살림전도회 기도회 / 매주 1500, 살림전도회실
- 살림전도회 목회도회 / 11일(수) 새벽기도 후, 살림전도회실
- 살림전도회 월례회 / 15일(다움 주일) 1500, 교육관 212호
- 경정전도회 월례회 / 15일(다움 주일) 1500, 관란반
- 교육원원회 월례회 / 13일(금) 1800, 교육관
- 충현선교장학회 위원 및 심사위원 모임 / 10일(목) 0630, 신교관 301호
- 인수집회 월요새교회도회 / 9일(목) 새벽기도 후, 교육관 109호
- 권사회 제1회 월례회 / 11일(수) 1부예배 후, 사랑부실
- 권사회 제2회 월례회 / 11일(수) 1부예배 후, 영아부실

● 남전전도회

- 바. 물 3 / 14일(토) 1800, 최홍규 집사(556-8487)
- 바. 물 10 / 14일(토) 1800, 최홍규 집사(556-8487)
- 바. 물 12 / 15일(다움 주일) 1500, 교육관 212호
- 바. 물 14 / 오늘 교육모임 201호
- 베드로 1 / 14일(토) 1900, 주영선 집사(세브자수, 555-6833)
- 베드로 8 / 14일(토) 1830, 김승림 집사(297-5725)
- 베드로 9 / 12일(목) 1930, 박삼을 집사(관공관, 212-6728)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번호	성명	교구	소속부서	연도자
248	박정식	19	대학부	270	박정식	19	중등부	292	김형준	8	청년1부			
249	정지나	19	대학부	271	박해신	19	중등부	293	박희만	11	마음			박나연(5)
250	안상일	19	대학부	272	정지나	1	청년2부	294	황순애	19	대학부			
251	최세진	19	대학부	273	이동하	1	루디아	295	김성원	19	대학부			한지영(5)
252	정성준	19	대학부	274	정성준	2	루디아	296	정성원	19	청년1부			
253	이정훈	19	대학부	275	김정준	2	루디아	297	유지선	19	청년1부			
254	이민우	19	대학부	276	한해영	2	청년2부	298	유복식(2)	19	청년1부			
255	손준원	19	대학부	277	방제희	2	대학부	299	주수진	19	청년1부			
256	장호찬	19	대학부	278	최해원	2	청년2부	300	황상호	4	중등부			황현택(4)
257	이재민	19	대학부	279	김하수	6	청년2부	301	송희식	13	대학부			
258	이정훈	19	대학부	280	나수아	6	대학부	302	김민준	19	청년2부			
259	송준식	19	대학부	281	박나나	7	대학부	303	박영준	19	청년1부			
260	사우명	19	대학부	282	문영민	8	한나	304	조수현	19	대학부			이수정
261	유정민	19	대학부	283	김진영	2	청년2부	305	한지민	19	청년2부			이수정
262	이현서	19	대학부	284	송민정	10	대학부	306	김정민	19	청년2부			손선자(9)
263	이정하	19	대학부	285	송민정	14	청년2부	307	송명규	19	고등부			
264	최준호	19	대학부	286	최한민	14	청년2부	308	하영진	19	중등부			
265	민지현	19	대학부	287	최영민	16	청년1부	309	김현도	19	대학부			
266	민지현	19	대학부	288	장영호	16	청년2부	310	김현민	19	대학부			
267	김정하	19	대학부	289	한수영	17	대학부	311	최동진	19	대학부			
268	신우람	19	고등부	290	이재민	19	대학부	312	하영진	19	고등부			
269	하수진	19	중등부	291	노준호	1	루디아	박선미(19)						

※충현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금주의기도제목

- 김정원 원로목사의 사역을 지지하고 김성관 위임목사의 건강을 온전히 회복케 하소서.
-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인정받은 충헌선교장학회가 성립되게 하소서.
- 오늘까지 있는 전도위원회 영성훈련이 실질적인 변화와 일으키는 말씀의 능력으로 충간케 하소서.
- 계속되는 겨울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 학생들의 심령이 말씀으로 부흥케 하소서.
- 오늘 예배전 찬양을 담당하는 바리톤 강민구(실로암찬양대 지휘자, 2부), 테너 정학주(할렐루야찬양대 솔로리스트, 3부), 피아노 최순복(시온찬양대 피아니스트, 4부), 소프라노 김서영(대북찬양대 솔로리스트, 5부) 성도들이 영으로 찬양하게 하소서.
- 모든 성도들과 기관과 교회에 선교의 열거가 활활 타오르게 하셔서 많은 젊은이들이 선교의 대열에 힘써 참여케 하소서.
- 새벽기도회와 금요집회와 5부예배가 계속해서 힘있게 일어나게 하소서.

■ 원로목사

■ 김성관

■ 위임목사

■ 박삼

■ 부목사

■ 이흥선

■ 김희수

■ 조순재

■ 이종대

■ 현상민

■ 김동철

■ 한근수

■ 이승일

■ 김필수

■ 정현준

■ 김재철

■ 이종수

■ 정갑진

■ 장영민

■ 최준호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 최영민

9998, 2, 8 제98 - 6호

매월 11일 - 민주기 5장

충현 성령통신 강좌

(예) 국어 지역 구역 () 이름

1. 다음 성구는 몇 장 몇 절에 있습니까? (레위기 11 ~ 16장)

- 1)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
- 2) 제 말에는 그 아이의 양귀를 뱉 것이요 ()
- 3) 그가 부정한 خون 살피지 권에 살지니라 ()
- 4) 그들이 미처는대로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취하되 ()
- 5) 유혹병 있는 자의 눈은 상한 다 부정한고 ()
- 6)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일한 일지 속죄할 것이니라 ()

2. 다음 성구를 원상 하시오. (레위기 17 ~ 22장)

- 1)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 피인즉
- 2) 너희의 전에 있던 그 땅 거민이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였고
- 3) 나는 내 백성 중으로 돌아다니며
- 4)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족속의
- 5) 제사장들은 백성의 어른직

6)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회생을 드리거든

3. () 안에 알맞는 말을 넣으시오. (레위기 23 ~ 27장)

- 1) 너는 그것을 () 자와 객을 위하여 버려 두라
- 2) 그들이 그를 가두고 () 을 기다리려니
- 3) 제 오십년을 거룩하게 하여 전구 거민에게 () 를 공포하라
- 4)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 하나님님이 되고 너희는 () 이 될 것이니라
- 5) 오직 생축의 셋 새기는 () 에 들릴 것 새끼라
4. () 안에 맞는 것에는 O표, 틀린 것에는 X표 하시오. (민수기 1 ~ 5장)
-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지 않으셔서 백성들을 계수치 아니했다 ()
- 2)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다 ()
- 3) 모세와 아론이 레위인으로 대속한 이외의 사람에게서 속전을 받았으니 ()
- 4) 또 금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
- 5) 이스라엘 자손의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아론의 것이라 ()

◆교회목표◆

신령한 예배
천국인공 양생
민족복음화
세계선교
지역사회 봉사

주관 중 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나
(빌립보서 1:21)

발행처: 대한예수교 총연합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552-8200

THE WEEKLY CHOONG 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김은호 편집국장: 조순근

'98 전반기 성경연구원 개강 청지기훈련으로 받은 도전 성경공부로 다져가기

개강예배는 한 주 연기된 3월 7일, 오늘부터 신창

'98 전반기 성경연구원 개강이 3월 7일(토)로 한 주 연기되었다. 이미 지난 2월 초에 실시된 청지기훈련을 통해서 말씀에 대한 바른 이해의 중요성에 깊이 도전받은 바 있는 총련의 모든 일꾼 및 성도들은 금번에 실시되는 성경연구원의 주간성경공부반, 직분자 양육반, 교사양성반, 찬양대원양성반 등의 공부를 통해서 말씀에 대한 이해의 폭을 더욱 넓히고, 직분에 걸맞는 바른 가르침을 받는 귀중한 기회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수강을 원하는 성도들은 오늘부터 3월 6일까지 교육국에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강의 일정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주간 성경공부

- 교육시간: 매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오전 - 오후

- 강의장소: 교육관

- 코스쉐이반:

코스쉐이1(화, 오전 10시, 조문찬 목사)

코스쉐이2(화, 오후 7시, 차병준 목사)

코스쉐이1(수, 오후 2시, 김동석 목사)

코스쉐이2(수, 오후 2시, 이승림 목사)

코스쉐이3(수, 오후 2시, 한근수 목사)

코스쉐이4(수, 오후 2시, 전형준 목사)

- 성경 학과반:

출애굽기(화, 오전 10시, 김필수 목사)

마태복음(화, 오전 11시, 정갑진 목사)

요한복음(수, 오후 2시, 이승수 목사)

요나, 미가(목, 오전 10시, 조문찬 목사)

로마서(목, 오전 11시, 김동석 목사)

(2) 직분자 양육반

- 구역장 - 권사반

수, 오후 12시 30분, 김성관 목사 외

각 구역 목사, 갈릴리움

- 안수집사반

월, 오후 5시 40분, 김희수 목사

교육관 114호

(3) 교사양성부

화요일 15:00~16:50

화요일 19:00~20:50

회계실무 교육

- 시간: 오늘(2월 15일) 오후 3시
- 대상: 남나전도회 회계, 부회계, 교육위원회 회계, 부회계 기타 위원회 총무처장, 총무, 회계
- 장소: 교육관 307호

- 강의장소: 교육관 301호

- 교과목:

모세오경, 역사서(이홍성 목사)

시사, 신지서(김인식 목사)

복음서(정원현 목사)

바울서신(김병태 목사)

신론, 인간론(차병준 목사)

그리스도론, 구원론(조윤재 목사)

교회론, 종말론(조철수 목사)

기독교교육(전형준 목사)

교회음악(현상민 목사)

선교론, 전도론(이승림 목사)

예배론(박경찬 목사)

새신자 양육(김재철 목사)

교사론(이승수 목사)

상담심리(김희수 목사)

교회사(김동석 목사)

학습지도법(정갑진 목사)

연구수업(이종대 목사)

교생실습(2주간)

(4) 찬양대원양성부

- 교육시간: 매주 일 15:00~16:50

- 강의장소: 베다니홀

- 교과목:

찬양대원의 형성(조문찬 목사)

교회 일꾼의 자격(정갑진 목사)

합창소용 및 반성(강인구 선생)

초급시창(조신욱 집사)

영적 예배와 찬양(조철수 목사)

성경에 나타난 찬양(김동석 목사)

중급시창(장기범 집사)

고급시창(이진우 집사)

합창 학습(김필수 집사)

은사와 봉헌(조윤재 목사)

찬양대원의 자격(현상민 목사)

성경통신강좌 별지에 인쇄키로

교회는 지난 1월부터 주보의 형식이 바뀌면서 주간총련 8면에 게재하기 시작한 성경통신강좌를 지난 주부터는 별지로도 인쇄하여 배부키로 하였다. 이는 통신강좌를 위해 한 가정에서 여러 부수의 주간총련을 가져가 일부만 잘라서 사용해야 하는 불편함과 낭비가 뒤따른다는 건의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성경통신강좌를 꾸준히 해오라는 성도들은 별지에 인쇄되어 본당 안 내석 등에 비치된 통신강좌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단, 이 통신강좌는 주간총련을 우편으로 받아오는 타지의 성도들을 위해서 주간총련지에도 계속 실릴 예정이다.

‘우리가 이 일에 증인이라’

대학부 겨울수련회 은혜 중 마쳐

대학부(부장 서동석 장로, 지도 김동하 목사)는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3박 4일에 걸쳐, 총련기도원에서 겨울수련회를 가졌다. 개강예배를 통해서 김동하 목사는 성경 전반 및 18세기 이후의 선교 역사 개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시대에 따라 일꾼을 세우셔서 그들을 통하여 생명의 진리가 어떻게 전해지도록 역사하셨는가를 회고하며 '바로 지금 우리가 그 일꾼으로 부름받고 있다'는 메시지로 도전하였다. 대학부는 4백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번 수련

회의 초점을 사도행전적인 복음 생명의 현재적 임재에 맞추고서, 이에 걸맞는 선교영화(Behind the Sun '해가 가리운 곳으로')를 상영하고, 또한 사도행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년별 연극발표 시간을 가지기도 하였다. 대학부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단기선교 지망자들을 좀 더 광범위하게 발굴할 계획도 가지고 있었다. 이들을 통해 교회의 선교가 젊고 힘있게 감당될 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와 격려가 요청된다.

98년도 제1차 학습세례식 오늘 찬양예배시에

예배위원회에서는 올해 첫 학습세례식을 오늘 찬양예배시 본당에서 거행한다(유아세례식은 오후 3시 갈릴리움). 대상자들은 학습자 123명, 세례자 122명(외국인 근로자 12명 포함), 일교자 91명, 개종자 6명, 그리고 유아세례자 41명 등이다. 이들이 이 과정을 통하여 더욱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본인들뿐 아니라 온 성도들의 사랑의 기도가 있어야 하겠다.

자원봉사 신청 3월 8일까지 접수

교회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욱 거룩하고 아름답게 보존하고 하를 나라 확장을 위하여 성도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달란대로 헌신 봉사할 것을 바라며 지난 2월 8일 주보와 함께 자원봉사 신청서를 배포하였다. 따라서 총련의 모든 성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서 신청서를 작성하여 오는 3월 8일(주일)까지 본당 로비에 마련된 성경통신함에 넣거나 사무국으로 제출하여 선한 정치기로서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총련소석장학생 선발

지난 주에 보도된 선발기준 및 선발방법 등에 의거하여 아래의 일정으로 총련소석장학생을 선발할 예정이니, 추천자 및 지원자들은 아래의 일정을 참고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1. 장학금 신청마감: 1998. 2. 18(수)
2. 자체한 신청서류들은 2월 8일자 주간총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서류접수는 교육국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 서류심사: 1998. 2. 20(금)
3. 논술 및 면접: 1998. 2. 21(토)
- 논술고사: 오전 9시 국제회의실(선교관5층) • 면접: 오후 2시(장소는 당일 통보)
- 논술고사는 공통 주제와 전공별 주제로 나누어 각 항에 두 문제씩 출제될 예정
4. 1차 사정: 1998. 2. 24(화)
5. 2차 사정: 1998. 2. 25(수) 장학생 선발
6. 지원자 중 장학생 선발자는 2월 26-28일에 실시되는 중·고·대·청신교수련회에 참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6. 장학생 최종 확정: 1998. 3. 4(수) 정기당회시
7. 장학금 수여: 1998. 3. 8(주일) 찬양예배시
8. 기타 문의: 교육국(구내전화: 475, 김이경 집사)

하나님의 심판 (1)

(이사야 13:6-11)

본 문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어 심판의 칼을 뽑을 때에 바벨론에 임할 무서운 혼란과 파멸을 보여 주는 예언입니다. 특히 심적인 고통이 클 것과 천체지진이 일어날 것을 보여 줍니다.

1. 하나님의 심판을 바벨론이 어떻게 대비해 했습니까

"너희는 애곡할지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니..." (6절)

'애곡'이란 슬피 통곡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악을 행한 후에는 반드시 양심이 괴로움이 옵니다. 내가 잘못하면 양심은 나를 위해 변명할 여지 없이 나 자신을 책망합니다. 그러므로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보내신 심판자입니다. 양심의 책망을 듣고도 고치지 못하면 뒷사람이 책망하게 되고 뒷사람의 책망을 듣고도 고치지 못하면 그 다음에는 아랫사람이 충고하게 됩니다. 아랫사람이 정서적인 눈물로 충고해 주는데도 고만하리 계속 그릇된 길을 가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동동이를 드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한 번 죄를 범했다고 임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 단계를 거치면서 경계를 속구해도 계속 범죄할 때에 최후로 심판하십니다. 두 번, 세 번 잘못할 때에 내 양심이 책망하고 뒷사람이 책망하고 아랫사람이 충고하여도 듣지 아니하면 '이제는 안되겠다' 하시면서 최종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의 동동이를 드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참으실 때에 회개하지, 하나님이 심판의 동동이를 드시면 철회 앞에 걸그릇처럼 인간은 산산조각이 나고 맙니다. 그래서 본문 초두에 '너희는 애곡할지이다'라고 하면서 회개하지 않은 자가 영원히 애곡하게 될 것을 보여 줍니다.

'여호와'의 날은 두 가지로 생각해야 합니다. 첫째는 종말론적으로 내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때이고 또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이 여호와와 같습니다. 둘째는 내가 잘못하여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동동이를 맞고 고생하는 때가 여호와와 같습니다. 이 여호와와 날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미리 울어야 하고 미리 조심해야 하고 미리 충성해야 합니다.

2. 바벨론을 심판하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 잔동자에서서 멸망이 임할 것이요..." (6절)

하나님은 두 가지 면에서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말씀 한 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셨으니 건설하는 면에서 전능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심판의 동동이를 드시면 악을 자가 없으니 파괴하는 면

에서 전능하십니다.

3. 하나님의 심판이 바벨론에 임할 때의 현상이 어떠합니까

(1) 손이 피곤하고 마음이 녹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에 세계를 정벌하고 뿔뿔히 바벨론 군대는 맥이 풀리고 피곤해질 것입니다. 육체만 피곤해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까지 녹습니다.

'마음이 녹을 것' (7절)이란 정신적으로 패배의식에 빠져 사기가 죽는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죽어 버리면 완강이 나오게 됩니다. 완강이 조금 커지면 신경질을 부리게 됩니다. 신경질을 부리는 것이 조금 과해지면 그 다음에는 저주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자는 권세가 있고 재산이 많고 지위가 높아도 마음은 녹초가 되어 있습니다.

(2) 서로 쳐다보고 놀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는 사람들은 놀라며 슬퍼하고 고통에 사로잡히는데 마치 입산한 여자와 같다고 하였습니다 (8절). 서로 얼굴을 본다는 것은 말을 할 수 없을 정도로 회담이 끊어졌다는 말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서로 얼굴을 보니까 안색이 변하여 얼굴에 웃음의 꽃이 아니라 비화본이 시꺼멓게 일고 있다는 말입니다.

(3) 땅은 황무해집니다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질이 진노의 동동이를 드시면 화려하고 웅장하던 바벨론은 황무지가 되고 그 중에서 죄인은 멸망을 당합니다 (9절).

(4) 하늘에는 이변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하면 별도 달도 해도 볼 수 없고, 어디 하어도 그것이 눈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날에는 하늘은 종이되어 마리는 것같이 떠나가고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우고 (6:14) 땅이 뜨거운 불에 불어지게 됩니다 (벧후 3:10).

4.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

(1) 악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까

성경에는 악하다는 것을 대표적으로 세 가지를 들었습니다.

① 게으른 것이 악합니다

열 처녀 비유에서는 게을렀던 처녀들은 신랑에게 거절당하여 천국로 밖에 서 울어야만 하였습니다. 또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게을렀다는 죄로 있던 것마저 빼앗기고 마늘 아무운 데로 내어쫓기게 되는 봉변

저와 여러분은 화와 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심하므로 본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을 당하였습니다. 일하기는 싫으면서도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좋은 옷을 입고 싶고 밤낮 재미있게 살고 싶으니까 결국은 못된 짓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② 음란한 것이 악합니다

③ 거스리는 것이 악합니다.
자신의 양심을 거스리고 부모님을 거스리고 목사를 거스리고 하나님을 거스립니다. '올기는 해도 듣기는 싫어' 이러면서 독사처럼 고개를 들고 거스릅니다.

바벨론이 심판을 받은 것은 악하기 때문이었는데 첫째는 게을러서 둘째는 음란해서 셋째는 거스리는 악을 행하다가 하룻밤에 망하고 말았습니다.

(2) 고만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은 사실 교만할 만한 조건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은 세계 최강의 군대가 있었고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나라였으며 세계 최첨단의 지식을 축적하였습니다.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임의로 쓰신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앗수르가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셨습니다. 애굽이 부패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 징계하셨습니다. 유다가 예루살렘이 범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들어 예루살렘을 징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로서의 복을 받고는 교만해서 성전에 들어가 제단을 때려 부수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떠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는 종들까지 학대했습니다. 이것이 바벨론이 멸망할 죄가 되었습니다 (사 14장, 렘 51장).

(3) 잔인하기 때문에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입산부의 배를 갈라놓고 구경하면서 즐기고 할 정도로

잔인했습니다. 이런애기의 다리를 잡아 들고 땃대로 머리를 내리쳐 깨뜨려 죽여가는 모습을 보고 웃을 수 있는 정도이니 그 잔인함은 상상도 못합니다. 약자의 것을 빼앗아 술을 사 먹으면서 약자가 억울하여 우는 소리를 음악으로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잔인한 것이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미리 울 줄 아는 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고, 법한 죄악을 가슴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바로 살겠다는 결심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둘째로, 미리 조금 음연 원천토록 끊어 끊어 끊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받은 바 은혜를 감사하는 눈물이 있어야 하고, 법한 죄악을 가슴 아파하는 회개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앞으로는 바로 살겠다는 결심의 눈물이 있어야 하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는 간구의 눈물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쓰시는 동안에 일하고 일한 후에 교만해서 반역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이 바벨론을 사용하실 때에 바벨론이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겸손하였더라면 망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벨론은 하나님이 사용하실 때에 감사하면서 조심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교만하다가 일시에 망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화와 복의 열쇠가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조심하므로 본인이 복을 받고 가정이 복을 받고 이 나라가 복을 받고 자손들에게 복을 물려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ㄴ

● 김성관 목사의 1월 15일 5부예배 설교 ●



사울의 회심 (사도행전 9:1-9)

사울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의 인생관이 바뀌었습니다. 사울의 모든 것이 바뀌어진 사실이 나와 모든 관계가 있는지 올바르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바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면에서 얘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사울의 회심을 우리 한 분 봅시다. 우리는 이론과 지식과 신학이 사울을 변화시킨 것이 아님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나오신 여러분들 중 신앙이 있고 자기의 이론이 확실하게 서 있으면서 바울을 통해서 배워야 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울은 기독교의 뿌리가 되는 구약성경을 누구한테도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약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이 사람은 히브리인 중의 히브리인입니다. 유대 민족 중의 유대 민족입니다. 유대인의 택한 백성 중의 택한 백성입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외적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식적인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모든 가슴 모든 마음 모든 정성 자기의 생 전체를 하나님께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가 왕성하게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에도 그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하게 강하게 율법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배경을 가지기에 그가 회심한 이후에 복음의 사도가 되어서는 율법의 지명적인 약점을 애드립을 치고 있던 것입니다. 다소에게 대하니 어느정도는 좋은 환경에서 자란 바울은 당대의 뛰어난 학자인 가말리엘 문하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신학과 중 가장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한 것입니다. 존경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봤을 때 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7장 58절로 돌아가 봅시다. 사울은 스테반의 설교를 다 들었습니다. 스테반은 공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인간적으로 지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신학과를 나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의 감동받은 후에 그는 구약의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명확하게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명확한 복음이 당시의 사울에게는 큰 결핍점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복음을 중요했습니다. 따라서 스테반에게 체계성을 품고 죽이려고 달려드는 자들의 뜻을 막아 서 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스테반의 죽음과 더불어 핍박자 사울의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서야, 8장 1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7절 58절에 보면, 스테반이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고 부르짖으면서 무릎을 꿇고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라고 외칩니다. 이 소리를 사울이 들었습니다. 그

런데, 8장 1절에서는 "사울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고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사울은 스테반이 죽는 것을 안타깝게 느끼지 않았겠습니까? 스테반은 진정한 의인의 모습으로 죽어갔습니다. 만일 사울에게 율법신학에 근거한 배경이 없었더라면, 그의 눈에 보기에 스테반은 얼마나 착한 사람입니까? 틀에 맞아 쓰러집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습니까? 그리고서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하면서 쓰러집니다. 그러나 천사의 얼굴을 하고 쓰러지면서 외치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도 사울은 자기의 율법에 충실해서,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자기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스스로 확증합니다. 이것이 '그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는 의미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선민 이스라엘을 구원케 하는 율법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신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예수종교는 틀림없이 이단입니다. 따라서 사울은 스테반의 죽임 당함을 마땅히 여길 만큼 하나님과 그의 율법을 사랑한 것입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사랑했습니다. 그는 인간의 감정이나 동정, 사랑을 뒤로 던졌던 사람입니다. 그의 상황에서는 하나님을 먼저 잊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울은 이제 예수 종교의 본거지인 회교회를 전멸하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이 인간을 없애기 위해서 다 잡혀 들어와 남자를 끌어다가 옥에 넣었습니다(행8:3). 사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종교를 깨트리고, 예수상관 회교회를 깨트리는 주동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 의미로도 예수상관 회교회를 깨트린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회교회가 세계 방방으로 전해 질 수 있는 동기가 됐습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험과 살기가 동등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대제 회교 회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일을 좇는 사람을 만나면 무른 남치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라 함이니"(행9:1). 사울이 지금 각 회교마다 가서 전멸합니다. 남녀들을 끌고 나옵니다. 그리고 옥에 넣어 넣습니다. 그들을 잡아서 때립니다. 그런데, 놀랍도록 그 때마다 찬송이 들립니다. 그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스러운 간증이 스테반과 같이 이론 주문을 통해 들립니다. 사울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박해를 하면 할수록 그리스도의 복음이 성령님의 역사가 점점 강해집니다. 따라서 이제는 핍박의 범위를 좀더 넓혀, 도망간 그리스도인들의 본거지로 알려진 다대제까지 가고자 합니다. 다대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이 백 마일이나 떨어져 있습니다. 약 삼백 이십 킬로미터가 넘는 거리입니다. 먼

거리입니다. 이 길을 걸어야만 합니다. 이에 따라 그는 대제사장들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잡아올 권세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백 마일이나 되는 산길을 따라 다대제으로 가는 길목에서 사울이 걷고 있습니다. 길을 걷는 중에 그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번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참이 되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하는 스테반의 간곡한 부르짖음이 잡자리에 든 사울의 귀를 울립니다. 사울은 다시금 이를 잡니다. 아니야 아니야. 이단종교에 불과한 놈들이야. 그러자 '주여 내 영혼을 당신께 부탁하나니'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온 몸이 떨기 납니다. 아니야 분명히 그놈이 거짓말을 했을 거야. 또다시 머리를 흔들면서 잊어버리고 잡니다. 그러다 또 생각아 떠오릅니다. 어떻게 둘을 맞으면서 거짓말을 했을까? 아니야 그놈이 미쳤을 거야. 걸어 갑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 번 생각했습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을 떠나서 미디안 광야로 들어갈 때 그는 얼마나 하나님을 행해서 원망했을까요?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나는 40평생을 바로궁일의 왕자로 자라면서도 애굽의 영광을 누리지 않았다. 나는 내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다. 열심히 부도를 댔었다. 내가 40살이 됐을 때 내 민족을 살리려고 내 민족을 괴롭히는 애굽 사람을 쳐죽였다. 그런데, 내 민족끼리 싸우는데 보는 보고 안타까워서 다했는데, 도대체 이것이 무슨 꼴인가? 모세는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했는지 미디안 광야를 걸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가슴속에는 아니야 하나님아 살아 계시는 내 민족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일 거야 라는 소리가 치웃아 옵니다. 드디어, 40년 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신 땅을 가록한 땅이니 내 백성을 명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61일길을 걸어가는데 사울은 모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니. 물이 저쪽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어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다대제 성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갑니다. 이제 스테반과 같은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 속에서선 형편 남게서 그를 혼드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보다 훨씬 강렬한 빛이 임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태양의 빛이 아니

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사울을 내려쬐일 때 사울과 같이 가던 모든 사람들은 그 빛에 쓰러졌습니다.

사실 그 빛이 비추지기까지 사울의 마음은 번민으로 복잡했습니다. 그러나 그 빛과 함께 들린 음성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말씀은 일시에 모든 번민을 거두어가는 생명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 음성을 처음 들었을 때, 그는 그가 누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그 음성을 향해 물었습니다.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러나, 경악할 만한 답변이 그 음성으로부터 나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사울에게는 더 이상의 번민이 필요 없었습니다. 영광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빛이 내려쬐였을 때는 사울을 변화시켜 달았습니다. 지금까지 당당했던 사울은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갈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스로의 길을 자신이 인도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살기가 등등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사색졌고, 눈이 멀었습니다. 그리고 고백했을 것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죽어가는 스테반의 천사같은 얼굴을 기억합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의인들을 죽였었다. 사울은 이제 자신 없는 사람이 돼 버렸지만, 바로 그 때 놀라운 주님의 음성이 그를 인도합니다. "일어나 성로 들어라"(6절).

이제 다대제 성으로 들어가는 사울의 발걸음은 달라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깨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경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광야를 걸었겠습니까. 미디안 광야,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40년 동안 그가 한 일은 무엇입니까? 우물에서 물을 길는 일입니다. 그러면서도 그의 가슴속에는 아니야 하나님아 살아 계시는 내 민족은 하나님께 택하신 백성일 거야 라는 소리가 치웃아 옵니다. 드디어, 40년 지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네가 신 땅을 가록한 땅이니 내 백성을 명하여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61일길을 걸어가는데 사울은 모든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니. 물이 저쪽에 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단을 없애기 위해서 다시 힘을 내어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힘을 주시옵소서. 또 기도합니다. 다대제 성을 향해 점점 가까이 갑니다. 이제 스테반과 같은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사람을 잡아야 합니다. 얼굴이 천사와 같은 사람들을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의 양심 속에서선 형편 남게서 그를 혼드시는 음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태양보다 훨씬 강렬한 빛이 임합니다. 태양보다 더 밝은 빛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로 있었던 역사적 사실입니다. 태양의 빛이 아니

선교지에서 온 편지 / 수리남 안식일 선교사

진료소 통해 확산될 이슬람의 위협

큰 영적 전쟁 위한 중보 부탁

생명 마쳐 복음 전할 일꾼 절실

할렘루아!

끊임없는 기도로 수리남 선교에 참여하고 계신 모든 본들과 선교위원회와 총회의 성도들 가장 위해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넘치기를 기원합니다.

선교의 최일선에서 하나님의 섬리 하심과 기도의 응답을 지켜보면서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신실하게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수리남과 저희가 담당하고 있는 헤이어스 플레이트의 현지인교회와 마다에 있는 인디아 교회를 위해 특별히 기도를 필요로 하여 지난 12월에 기도를 부탁드렸는데 그중에 마다의 교회가 하나가 되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마다에 순복음교회를 시작했던 형제들이 11월 중순부터 아무 예고도 없이 계속 오지 않아 대대되는 두 가정을 방문하여 간편하였더니 12월중순부터 모든 사람들이 함께 저희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하여 함께 성탄예배와 행사들을 치르며 하나가 되었습니다.

전에는 마다의 제임스 형제가 관철 염으로 건지를 못해 기도를 부탁드렸었는데 기도에 주서 제임스 형제가 깨닫게 되어 다시 그 다음에 걸어서 교회에 나왔습니다. 할렘루아! 주의 이름으로 감사드립니다.

1. 수리남을 위해

- 사탄의 역사를 물리칠 수 있게 하소서.
- 복음의 문이 열려 있을 때 주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이 나라 12월 2일자 신문에 수리남

이 52만명으로 이슬람 개발은행의 회원국이 되었다고 소개하면서 98년에 첫 사업으로 정글에 있는 21군데 부락에 수백만불을 투자해 진료소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와 영적인 것을 권장하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료소와 함께 이슬람교의 전도자들을 파송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이제 큰 영적인 전 경이 시작되었습니다. 앞으로 큰 고난이 있을 것입니다. 수리남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필요하며 사탄의 권세를 막기 위해서는 이슬람교인들 향해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일꾼이 필요합니다.

수리남은 모슬렘들을 향해 하나님께서 선교의 문을 열어 놓으신 몇 안되는 나라중 하나입니다. 이 땅의 20% 정도의 모슬렘들이 복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놓으신 것은 바로 저들을 향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중동의 단련 된들을 열거하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열린 문을 두고도 들어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것입니다.

수리남에 이슬람 교세가 커지게 되면 중동이나 인도네시아같이 선교의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문이 열렸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을 바쳐 복음을 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 헤이어스 플레이트 현지인 교회를 위해

- 영적으로 성장하는 교인들이 되게 하소서.

수리남의 교인들은 이사를 가면 더

이상 교회에 출석하지 않습니다. 이시간 동시에 교회에 있으면 출석을 하고 없으면 그것으로 신앙생활이 끝납니다. 저희 교인들 중에 이번엔 3가정 정도가 이사를 가거나 갈 예정이어서 자녀들까지 하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되는 데 너무 멀리 이사하면 데리러 다닐 수 없습니다. 키워놓은 일꾼들을 잃게 됩니다. 이것으로 저희들도 많은 아픔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또 저들의 신앙이 성장하여 멀리 이사를 가도 나눌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바시 위 / 총현교회에서 보내준 피리조 전양을 하는 어린이들.

사탄 아래 / 헤이어스 플레이트 현지인교회에서 있었던 성탄절 집회 모습.

3. 하나님의 영광 위해 사탄을 향해

-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할 땅을 속히 하라소서.

몇 해전부터 교회 옆 땅을 한인교회로부터 우리 장로교 선교부가 얻어 진료소와 선교관, 그리고 유치원을 계획하고 모든 서류를 준비하여 장관에게 제출하였는데 장관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허가를 안하고 거의 1년을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강력적으로 역사하시어 이 땅(약 500평)을 주시든지 아니면 다른 땅을 주시든지 하셔야 할 것입니다.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4. 자녀들을 위해

- 소영, 위영, 요한에게 건강과 지혜를 내려주소서.

선교사들의 어려움 중의 하나가 자녀 교육문제입니다. 벌써 7년 가까이 한남에서 공부하는 큰딸 소영이가 올해 6월에 졸업하고 9월에 대학에 가게 되고 둘째 위영이는 내년엔 대학에 가게 됩니다. 저들이 하나님께 학한 정성이라고 공부하고 하나님께서 귀히 쓰시는 그것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나의 주님의 하나님 *

"주가 쓰시겠다면"

이 복 회

(집사, 11교구)

지 금 TV에서는 나라 사랑 금모으기 운동이 한창 전개되고 있다. 수십 미터씩 줄지어서 차례를 기다리면서, 이름만 대면 금만 알 수 있는 장계의 누누누, 또 연금방, 평범한 회사원, 운동선수, 시골에서 올라왔다는 할머니들, 목직은 하나같이 나라를 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으로부터 십삼사년 전이었을까? 봉당 일당을 앞두고 성전 건축이 아직 마무리 되지 않았던 때였으리라. 성전 건축을 위한 특별부흥회 기간이었다. 성전 건축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담은 원로목사님의 말씀들이 연일 이어졌다. 그동안 성전 건축 원금을 하진 했지만 이번엔 좀 경우가 달랐다. 원로목사님은 언제나 성도들이 부름받았길 알고는 "개미는 개미만큼" 황소는 황소만큼"이라하고 하시면서 성전 건축하는 일에 구경꾼이 없이 모두 동참하라고 말씀하셨다. 참으로 그 당시 "개미는 개미만큼"이라는 말씀에 힘을 얻어 개미만큼이나나 동참할 수 있었던 것이

지금에 와서 생각하면 감사하기 그지없다.

그런데 이 부흥회 기간은 나로 하여금 좀 액다른 고교에 빠지게 했다. 그동안 했던 것으로 내 할일을 조금이나마 했다고 생각했는데 장풍 속 조류가 간직하고 있는 패물 몇 개와 아이들 들난 지 등이 마음 속에서 생각하면서 골들 거렸다. "아무것도 없었어? 그거 있잖아?" 보나마나 남편에게 의논하면 "안 돼" 할 것이 뻔한데 왜 이리도 마음 속에서 그것들이 나를 괴롭게 하는 지 모를 일이었다. 집에 와서 장풍 속을 헤집어서 소중히 간직했던 반지랑 목걸이 등을 펴보면서 "이것들은 우리집 비상금이야"라고 생각하면서 "어렵겠다. 어렵 없이. 이것만은 안되지. 저머니들이 아시런 큰일 날 일이다. 남편 물러나는 디더욱 안되지?" 누가 물어왔나? 누가 내 노라고 강요했나? 괜히 혼자서 중얼거리면서 다시 고이 잘 써서 제자리에 놓아두고 또 저머니들 부흥회에 참석했다. 하지만 말씀을 듣노라면 계속 그것

들이 기억나면서 나를 괴롭혔다. 일주일 내내 고민하다가 주일날 아침에 다시 깨고보았다. "장풍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걸 뵈어? 누가 쓰시겠다면..."

드디어 주일날 아침 헌금창구로 내고 나오니 발걸음과 마음이 기쁘다. 가법다라는 표현만으로는 형언할 수 없는 평안함이었다. 남편과 의논하러 갔었다는 죄책감도 전혀 없고, 우리집에 비상사태가 생기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따위는 아예 없었다. 감사와 기쁨뿐이었다. 그 이후 우리집엔 지금까지 비상사태 같은 건 일어나지 않았고, 남편 일에서 결혼패물로 대한 이야기 등은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었다.

그런데 오늘(1월 17일 토요일) 남편과 "금모으기 캠페인" TV를 보다가 볼수록 "금이 많은 사람들은 참 고만민들이" 그랬더니 "고민은 뭘 고만민이 있으면 빨리빨리 내놓고 나라를 살려야지. 나라가 살아야 개인도 사는거야?" 우리는 금하나도 없으니더러 "우리도 조금은 없잖아?" 우리 패물이라 할 배틀말이야? "우리 것은 절대 안되지. 너무나 안전한 곳에 보관해 놓았기 때문에 안될걸?" 이 더는데? "우리는 배서하는 나라에 안전하게 보관해 놓았기 때문에 IMF에도, 전쟁에도 끄떡 없을걸" 그러면서 자연스레 성전 건축 당시 헌금했노라고 고백했다니 오해다. 행이라는 뜻이 "그랬어? 잘했어." 그동안 시시콜콜한 것까지 다 이야기 해야

만 마음이 편하자 성전에 남편에게 말하지 않은게 하나가 있다는 사실 때문에 가끔씩 마음 고생을 해야만 했던 나로서는 속이 후련하다. 아직도 평신도 위치에 있는 남편이 교회일이라면 언제든 나 우선 순위를 두고 자기의 심부름은 그 다음에 해도 된다고 늘 지원해 주는 사랑같은 심성을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사랑하셨으리라.

지금 쓰시겠다는 나라를 살려야 한다고 목격했 무뎠지는 영계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모습인지도 모를 일이다. 다시금 나라를 돌아보아야 한다. 몸만 분주하게, 교회로 들만 밟고 갔었다가 하면 그것이 하나님께 향한 정성이라고 생각하면서 자기 만족에 도취된 것은 아닌지? 사탄들의 귀만 즐겁게 하는 찬양을 하사했는지? 하나님 사랑을 믿지한 무례한은 없었는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점검해 봐야 한다. "주가 쓰시겠다면" 하신 것을 아직도 내 장풍 속 깊은 곳에 감춰 두고 잊지는 않겠는가?

"금모아 나라를 살려야" 이 외침이 오는 내게는 "나 자신을 점검해 봅시다" 라는 구호로 들린다. 하나님께서 살려 주셔야 하는 거지 금을 모아야 사는 것은 아닌것 같다. 우리의 영혼이, 금보다 귀한 믿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고 다짐하면서 비록 금은 없지만 내 내게는 아직도 금보다 더 귀한것들이 많이 있음을 인하여 감사한다.